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서울 남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김 광 경 · 이 숙 녀*

대전실업전문대학, 장안전문대학*
(1989. 8. 1. 접수)

**The Relationships Between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and
Clothing Behavior of Male Students in Seoul**

Kwang Kyung Kim · Sook Nyeu Lee

Dept. of Clothing, Dae Jeon Junior College
Dept. of Clothing, Jang An Junior College
(1989. 8.1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and four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2) to ascertain whether differences exist among demographic variables on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and Clothing behavior, (3)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four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was assessed by Eisler & Skidmore's Scale. Four aspects of Clothing (Conformity, Satisfaction, Exhibition, Brand Orientation) were assessed by Chung's, Lim's & Lee's, Shim's and Kim's questionnaires. The samples were consisted of 236 male students in Seoul. The statistical analyses of the obtained data included calculation of the Mean, S.D., Correlation, ANOVA and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was positively related to conformity, exhibition of Clothing and negatively related to satisfaction of Clothing.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of Major on Clothing behavior.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of locations of high school on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4)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each Clothing variables. Positive relationship were found between Exhibition and Brand Orientation of Clothing. Negative relationships existed between (i) Conformity and Satisfaction, Exhibition, Brand Orientation of Clothing, (ii) Satisfaction and Exhibition, Brand Orientation of Clothing.

I. 서 론

의복은 착용자의 역할 및 지위를 알게 해 주는 단서로서 작용하므로 타인의 역할과 자신의 특정한 역할을 인식하는데 있어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 된다. 이러한 역할 가운데 성역할은 남녀의 위치, 범주, 행동양식에 대한 요구 및 기대라 할 수 있으며 행동양식에 관한 성역할 기대중 많은 부분이 의복을 통해 나타나며 남녀의 전형적 의복은 각 문화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어 왔다. 그동안 성역할의 문제는 주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 법적, 직업적 차별대우, 균등한 기회의 박탈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런 여성에 대한 성역할 규정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남성의 성역할이 고정되게 되었으며 남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한 실제적 문제와 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표현되고 있다^{1,2)}. Doyle³⁾과 Fasteau⁴⁾는 성역할 스트레스의 영향이 남녀 정신건강 문제에도 다르게 나타나며 질병 및 수명과도 관계가 많다고 하였다.

Eislor와 Skidmore⁵⁾는 남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분류하여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본 연구는 지나치게 남성적인 사람들은 마치스모*적 행동을 한다는 Pleck²⁾, 조혜정⁶⁾의 언급을 토대로 성역할에 대하여 많이 의식함으로써 긴장도가 증가하고 그 긴장도는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을 기초로 하였다. 특히 의복 행동중 동조성, 만족도, 과시성, 브랜드지향에 더 관계가 깊다고 사려되어 4측면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Eislor와 Skidmore⁵⁾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와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와 의복행동(동조성, 만족

도, 과시성, 브랜드지향)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2) 배경 변인 사이에서의 차이를 남성 성역할 변인⁷⁾ 의복행동 변인에서 조사하고 두 변인에 영향력있는 배경 변인을 조사한다.

3) 의복행동 변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1) 성역할의 정의 및 발달

성(sex), 혹은 성별(gender)은 염색체와 생식기관,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며 태어날 때부터 남·녀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어린이는 자라나면서 점차 자신이 남자 혹은 여자라는 정체체감(gender identity)을 가지게 된다.

한 어린이가 신체적으로 남자 혹은 여자라는 것을 분짓는 순간부터 그 문화에서 그의 성별에 적합하다 규정한 일련의 가치관과 특성을 습득해 나가는 성형(sex-typing)과정이 시작된다. 이 성형화 과정을 통틀어 성별에 따라 습득하게 되는 성격특성, 태도, 선호향, 행동등을 모두 합하여 이를 성역할(sex role)이라고 부른다. 성형화 과정의 결과 습득되는 남성적, 여성적 특성의 정도와 형태를 성역할 정체감(sex role identity)이라고 한다⁷⁾. 성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심리적인 성 차이는 생물학적 요인 보다는 사회·화적인 요인 즉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역할 발달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이론으로는 정신분석학적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인지발달론들을 들 수 있다⁸⁾.

현대에 오면서 생산구조와 가정 기능의 변화는 성역할에 크게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성역할의 개념도 변화가져와 남향성 대 여향성이라는 동일한 차원상의 양 개념으로부터 이 둘을 개별 차원상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양성성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양성성이란 성역할에 대한 양성 성격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닌다. Bem⁹⁾은 Bem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여 남향성, 여향성 성격 특성이 서로 독립적 관계임을 증명하였다.

양성성 출현외에 또 다른 개념의 변화가 등장한 것 성역할 초월단계(sex role transcendence) 개념이다¹⁰⁾ Rebecca, Hefner, Oleskansky(1976) 등의 연구에서

*마치스모 : 자신의 남성다움에 자신을 잃고 불안해진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정복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여성들이 하지 못하는 무모한 짓을 함으로써 자신이 남자인 것을 과시, 과장하고 수시로 확인해 보는 행위

은 성역할의 학습 및 발달을 단계론적 입장에서 3단계 나누고 제 1 단계는 성역할의 분화가 되지 않는 단계, 2 단계는 양극화된 성역할 분화의 단계, 제 3 단계는 역할 초월의 단계라 하였다. 제 3 단계에서는 개인은 황에 따라 적절하게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게 되며 행동 감정표현은 성별과 관련된 적합한 특성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⁰⁾.

2) 남성성에 대한 연구

'남성다움'이란 남성으로 태어난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질과 자격, 해야 할 도리등을 가리키는 단어로 구실의 수행과 직결된 개념이다. 현대사회에서 어머니를 포함한 여성대상이 항상 곁에 있는 여아에 비하여 버지를 만나기 힘든 아들은 남성으로서의 정체감을 확하는데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주 양육가 되는 가족구조에서 어머니와 성이 같고 같은 일을 당할 딸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 즉 인격적 일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여성이 되어가나 아들은 그러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위치적 일시를 통하여 남성다움을 배워가야 한다. 그러므로 성다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남아들은 反 여성다움을 남성다운 것으로 규정하거나 정형화된 남성성에 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리하여 남성은 추상적 고경향과 무감정, 단선적인 인과적 사고에 집착하는향을 갖게 된다⁶⁾.

Pleck²⁾은 '남성성의 신비'에서 Male Sex Role Identity Paradigm을 제시하고 그는 심리적 발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역할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양성이론이 등장함으로써 MSRI Paradigm은 심리적 발달의 목적이 성역할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고전적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개신 성역할을 제한적이고, 구속적인 것으로 보게 됨으로써 대안적인 paradigm으로 Sex Role Strain Paradigm을 제시하게 되었다.

Sisler와 Skidmore⁹⁾는 남성 성역할의 부적응에서 오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MRS(Masculine Gender Role Stress)는 남성 성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황을 요인 분석을 통하여 5요인으로 나누어 문항을 만들었다. 요인 1은 신체적 부적합(Physical Inadequacy)으로 신체적 적절성, 성적우월, 남성다운 외모등이 열등할 때 오는 스트레스등을 말한다. 요인 2는 감정적 표현을 못하는데서 오는 스

트레스(Emotional Inexpressiveness)로서 사랑, 두려움, 감정손상등의 표현을 포함한다. 요인 3은 여성보다 낮은 지위에서 오는 스트레스(Subordination to Women)로서 사장이 여성일때나 성공, 돈, 통제에 있어서 여성이 더 우세한 상황일때를 포함한다. 요인 4는 지적 열등감(Intellectual Inferiority)에서 오는 스트레스로서 양심결여, 결정력 부족, 불확실성등을 포함한다. 요인 5는 작업수행의 실패에서 오는 스트레스(Performance Failure)로서 직업이나 성생활에서의 실패등을 포함한다.

3) 성역할과 의복

의복은 역할 중 특히 성역할을 인식하는데 있어 뚜렷한 상징이 된다. 또한 개인에게 있어 의복은 성역할 발달의 출발점인 성역할 정체감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며 아동은 의복을 통하여 남녀에게 적합한 성역할을 습득해 나간다¹¹⁾.

Davis¹²⁾는 생물학적 성과 정체감 및 성에 관계된 의복행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남·녀 모두 성과 관계된 의복에 영향을 미친 것은 생물학적 성이었고 남성의복에 대한 주 효과는 정체감(gender identity)이었다.

Jackson¹³⁾은 성과 관련되거나 성과 무관한 직업에 자극물이 적합한가를 지적하는데 있어서 성, 신체적 매력, 성역할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직업적 성역할 요구에 일치하는 성역할을 가진 사람은 불일치하는 성역할을 가진 사람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Kaiser와 Phinney¹⁴⁾는 전통적으로 성정형화된 놀이 활동에 대한 어린이들의 태도에서 의복을 측정한 결과 여성적이고 조용한 놀이는 더 자주 치마와 관련되었다. Koch와 Dickey는 직장에서의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 여성해방론자적 성향(feminist orientation)이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8개 의복태도 중 5개에서 여성해방론자적 성향과 의미있는 관계가 나왔다.

국내 연구를 보면 원미숙¹⁵⁾ 최경희¹⁶⁾는 여자의 경우에서만 개방적 성역할 태도와 유니섹스 의복행동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남자의 경우에는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주현¹⁰⁾은 남자 고등학생의 성역할의 개방적 태도는 부분적으로 의복의 동조성에 부적상관이 있었고, 성역할 태도와 유니섹스 의복행동 및 의복에서 유행하는 스타일 사이에는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고 하였

다. 이현미, 임숙자¹⁷⁾는 어머니와 딸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음·양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어머니들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음·양 의복행동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고, 딸의 성역할 정체감과 음·양 의복행동에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며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원미숙¹⁵⁾의 결과에서도 남자에서는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간에 의미있는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의복행동

1) 의복의 동조성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준거 집단에 속해있고 각 준거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의미의 체계와 가능한 행동 즉 규범(*norm*)을 제시한다. 규범은 행동, 감정, 사고등을 규정하거나 금지하는 범위이고, 이 규범의 지각 형태는 동조, 비동조와 관계가 있다¹⁸⁾.

Horn¹⁹⁾은 의복의 동조성이란 특정 집단의 기준에 맞추어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의복의 동조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하는 요소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Ryan²⁰⁾에 의하면 Barr 및 Verner는 청소년들의 의복선택시 중요한 요인은 동조성이라고 하였고, Takahashi와 Newton²¹⁾에 의하면 여고생들은 그들 자신의 의복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의복도 동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Hambleton, Roach 및 Ehle²²⁾의 연구에 의하면 의복의 동조성은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고등학생보다 높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 정미실²³⁾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 중·고등학생들의 지각향성은 의복의 동조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2) 의복의 만족도

의복의 만족도에 대하여 Ryan²⁰⁾의 소비자 만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싼 옷보다는 비싼옷에 더 만족하며,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의복의 특징과 개인의 관심 및 가치관에 의하여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둘째, 의복의 만족도는 소비자 동기의 측면에서, 많이 충족되며, 소비자가 특정한 의복을 구입하는 것은 그 옷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그 옷을 입었을 때 만족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의복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 Shannon은 의복의 외모, 색상, 디자인, 질감과 같은 감각적인 것에 대

한 만족, 적합성, 입었을때의 만족, 직물의 성질, 의복의 가격, 권위 및 유행의 7분야로 나누었다고 인용하였다. 임춘봉²⁴⁾과 이경순²⁵⁾은 남·녀 대학생 및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의 만족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이영운²⁶⁾은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의 만족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3) 의복의 과시성

Flugel²⁷⁾에 의하면 인간의 자기도취는 나체의 과시성과 그 힘을 보여주려는 자연적 표현이며 자기자신의 신체에 경탄하고 과시하는 것이다. 또한 나르시시즘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어린이나 꼭 맞는 옷을 입은 무용가나 운동선수의 과시활동(*exhibitionistic activities*)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쾌락이 바로 과시경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시경향은 어느정도 의복과 장식으로 승화되며, 이러한 변화는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덜 완전한데, 그 이유는 이미 과시성은 실제 노출과 조화시킬 수 있는 준비되어있기 때문이다. McJimsey²⁸⁾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욕구는 장식과 의복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 하였으며 Hurlock²⁹⁾은 의복의 과시성의 한 예로 귀족태의 정부하에서는 사회적으로 우월했던 사람들이 의복을 그들의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심소연³⁰⁾의 연구 결과 과시욕구는 의복의 과시성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김광경³¹⁾에서는 이론적 가치관 의복의 과시성과는 부적, 심미적 가치관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4) 브랜드지향

유명 브랜드 제품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며, Ryan²⁰⁾ 사람들이 싼 옷보다는 비싼 옷에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들어감에 따라 자기에게 어울리고 사회적으로 정반을 수 있는 옷에 만족한다고 하였다³²⁾. Cree more³³⁾에 의하면 직업이 없는 두 집단의 가정주부를 교한 Gate의 연구에서 지위와 권위를 추구하는 외적상향지향적(*Extrinsic-Reward Oriented*)인 사람들의 정적인 경향은, 동료집단의 의복에 동조하지 않고 새로 유행에 관심을 가지며, 분수에 넘치는 값비싼 상품에 의복을 구입하고, 의복으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 하는 것이다.

藤原康晴³⁴⁾은 피복의 관심도와 자존심과의 연구에 자존심과 피복의 관심도중 사회적 승인과는 부적상관성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브랜드 지향과는 관계가 없었다. 김광경³⁵⁾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하위

중 목표지향성과 자기존재의식이 브랜드 지향성과 의 있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검사와 복행동 검사가 사용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검사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성역할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Sleser와 Skidmore의 MGRS(Masculine Gender Role Stress)로서 이 검사는 상황에 따라 5요인으로 나어져 있으며, 총 40문항 중 우리 문화에 맞고 신뢰도 계가 .50이상의 것 30문항을 번역 수정하였으며, 모든 문은 5점 척도로 된 likert-type이다.

2) 의복행동 검사

의복행동 변인은 동조성, 만족도, 과시성, 브랜드지의 4측면을 포함하며 이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들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된 5점척도의 Likert type의 항들을 선택한 것과 번역 수정한 문항들을 포함하였. 즉 의복의 동조성은 정미실²³⁾에서 8문항, 만족도는 춘봉에서 5문항과 이경손에서 3문항, 과시성은 심소³⁰⁾에서 8문항, 브랜드 지향은 藤原康晴³³⁾에서 8문항

표 1. 표집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n=236	
성별	빈도	n	%
학 년	1	24	10.2
	2	64	27.1
	3	60	25.4
	4	68	37.3
전 공	자연 계열	107	45.3
	예능 계열	55	23.3
	인문사회계열	74	31.4
어머니 직업	종일근무	36	15.3
	시간제근무	17	7.2
	없 음	183	77.5
출신고교 소재지	대도시*	142	60.2
	중·소도시	42	17.8
	군이하	52	22.0

*대도시—특별시, 직할시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변인	신뢰도계수
동 조 성	.452
만 족 도	.676
과 시 성	.662
브랜드지향	.734

을 번역 수정한 김광경³⁵⁾에서 8문항을 선택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의복의 동조성, 만족도, 과시성, 브랜드지향등 총32문항을 혼합하여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내용은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하였다.

2. 표집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집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서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1989년 4월~5월에 설문지를 300부 배부하여 회수된 자료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하고 236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주로 수업시간에 응답토록하여 회수하였고, 응답 소요시간은 20~30분이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각 변인의 빈도분포, 평균치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적률상관계수로 검증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는 ANOVA를 사용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Stepwise Regression으로 보았다. 또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5.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의복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IV. 결과 및 논의

1.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와 의복행동과의 관계는 <표 3>

표 3.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와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n=236

의복행동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합 계	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요 인 4	요 인 5
동 조 성	0.175***	0.155**	0.017	0.224***	0.115*	0.127*
만 족 도	-0.152**	-0.096	-0.091	-0.131*	-0.140*	-0.110*
과 시 성	0.132*	0.161**	0.028	0.058	0.100	0.154**
브랜드지향	0.107	0.159**	0.002	0.063	0.122*	0.061

*p<0.05 **p<0.01 ***p<0.001

요인1. 신체적 열등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2. 감정적 표현을 못하는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3. 여성보다 낮은 지위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4. 지적 열등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5. 작업수행의 실패에서 오는 스트레스

과 같다.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총점과 의복행동의 동조성 및 과시성과는 정적상관이 있었고, 의복의 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남성 성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동조성과 과시성에 관심이 높은 반면, 자신의 의복에는 만족하지 못했다.

남성 성역할 하위척도중 신체적 부적합성에서 오는 스트레스(요인 1)와 의복의 동조성, 과시성 및 브랜드지향과는 정적 상관이 있어, 신체적 부적합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의복의 동조성, 과시성에 관심이 높았고, 브랜드 의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보다 낮은 지위에서 오는 스트레스(요인 3)와 의복의 동조성과는 정적상관이 있었고, 의복의 만족도에는 부적상관이 있어, 여성보다 낮은 지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동조성에 관심이 높은 반면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적 열등감에서 오는 스트레스(요인 4)와 의복의 동조성 및 브랜드지향과는 정적상관이 있었고, 의복의 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이 있어, 지적 열등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동조성에 관심이 높고 브랜드 의복을 선호하는 편이나, 자신의 의복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작업수행의 실패에서 오는 스트레스(요인 5)와 의복의 동조성 및 과시성과는 정적상관이 있었고, 의복의 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이 있어, 작업수행의 실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동조성과 과시성에 관심이 높은 반면, 자신의 의복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남성 성역할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의복의 동조성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지나치게 남성적인 사람들은 과시, 과장하려 한다는 조혜정⁶⁾의 언급을 토대로 동조성에 관심이 낮을 것으로 생각

표 4. 전공에 따른 의복행동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의복행동	전공		자연계열		예능계열		인문사회계열		ANOVA Fratio
	M	S.D.	M	S.D.	M	S.D.	M	S.D.	
동 조 성	2.74	0.43	2.70	0.42	2.72	0.41	2.72	0.41	0.21
만 족 성	3.31	0.47	3.18	0.46	3.40	0.45	3.40	0.45	3.33*
과 시 성	2.79	0.49	3.08	0.50	2.75	0.54	2.75	0.54	7.30**
브랜드지향	2.25	0.56	2.63	0.53	2.21	0.51	2.21	0.51	11.17***

*p<0.05 ***p<0.001

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의복의 동조성에 관심이 높으면서 오는 결과로 생각되며, 이러한 현¹⁰⁾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만족도에는 관심이 낮았다. 임춘봉²⁴⁾, 이경손²⁵⁾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이 의복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미루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자아개념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의복의 과시성에 관심이 높았다. 이는 과도한 남성성 표출이 과장되고 과시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Pleck²⁾, 조혜정의 언급을 지지해주고 Mc Jimsey²⁸⁾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와 의복행동 비교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전공(자연계열, 예능계열, 인문사회계열), 어머니 직업(종일근무, 시간제 근무, 없음), 출신고교 소재지(대도시, 중·소도시, 군이하)등 ANOVA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4, 5>와 같다

5. 출신고교 소재지에 따른 성역할 스트레스의 일원 변량분석결과

출신고교 소재지	대 도시		중소도시		군 이하		ANOVA Fratio
	M	S.D.	M	S.D.	M	S.D.	
Total	3.65	0.42	3.67	0.45	3.80	0.45	2.27
- 인 1	3.69	0.50	3.68	0.54	3.78	0.54	0.71
- 인 2	3.71	0.52	3.70	0.50	3.79	0.46	0.55
- 인 3	3.41	0.64	3.44	0.72	3.55	0.67	0.84
- 인 4	3.26	0.58	3.40	0.59	3.57	0.56	5.33**
- 인 5	4.17	0.62	4.15	0.63	4.30	0.57	1.05

<0.01

표 6. 의복행동 변인간의 상관관계

부행동	동 조 성	만 족 도	과 시 성
족 도	-0.232***		
시 성	-0.128*	-0.123*	
랜드지향	-0.109*	-0.229***	0.451***

<0.05 ***p<0.001

공 3집단 사이에 의복의 만족도, 과시성, 브랜드지향 미있는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 직업 유무에는 차이 없으며, 출신고교 소재지 3집단 사이에서는 남성 성 스트레스 하위척도중 지적 열등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귀분척을 사용한 결과에서도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향을 미친 변인은 출신고교 소재지였으며, 대도시 학생들이 남성 성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느낀 편이었다. 의복의 동조성(+), 만족도(-)에 영향 미친 변인은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로서 남성 성역할에 관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의복의 동조성에 관심이 높고, 반면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의과시성과 브랜드지향에 가장 영향을 준 변인은 전로 예능계 학생이 의복의 과시성, 브랜드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 결과를 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전공부분에서 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예능계열 학생 대체로 의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학적 변인 중 어머니 직업 유무가 영향이 있으리라 하였는데 나오지 않은 것은 표집대상자의 어머니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 고교 출신 학생들이 대체로 지방 학생들 보다 성

역할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남성 성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대도시 고교 출신 학생들이 덜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의복행동 변인 상호간의 관계

의복행동 변인 상호간의 관계는 <표 6>와 같다.

의복의 동조성과 의복의 만족도, 과시성, 브랜드지향과는 부적상관이 있어, 의복의 동조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과시성, 브랜드지향에 관심이 낮았으며, 자신의 의복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복의 만족도와 과시성 및 브랜드지향과는 부적상관이 있어,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는 사람이 의복의 과시성, 브랜드지향에는 관심이 낮았다. 의복의 과시성과 브랜드지향과는 정적상관이 있어, 의복의 과시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 브랜드 제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V.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와 의복의 동조성, 과시성과는 정적상관이 있었고, 의복의 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 2) 전공 3집단간에 의복의 만족도, 과시성, 브랜드지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3) 출신고교 소재지 3집단간에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하위척도중 지적 열등감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 4) 의복행동 변인 상호간의 관계는 의복의 동조성과 만족도, 과시성, 브랜드지향과는 부적상관이 있었고, 의복의 만족도와 과시성, 브랜드지향과는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의복의 과시성과 브랜드지향과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된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검사 문항이 외국의 것을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항이 우리 문화에 적합치 않은 것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더 연구하여 우리 문화에 맞는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복행동에서도 동조성 검사 문항이 신뢰도가 낮았기 때문에 동조성 검사 문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Goldberg, H., The Hazards of Being Male: Surviv

- ing the Myth of Masculine Privilege, N.Y.: Nash (1976)
- 2) Pleck, J.H., The Myth of Masculinity, Cambridge: MIT press (1982) pp. 15-27
 - 3) Doyle, J.A., The Male Experience, Dubuque, IA: W. C. Brown (1983)
 - 4) Fasteau, M.F., The Male machine, New York: Dell (1975)
 - 5) Eisler, R.M. & Skidmore, J.R., Masculine Gender Role Stress-Scale Development and Component Factors in the Appraisal of Stressful Situations, *Behavior Modification*, Vol. II. No. 2, 123-136(1987)
 - 6)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pp. 232-262
 - 7) 정진경,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 여성학, 3집, 한국 여성학회 (1986)
 - 8) 윤진, 남·녀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한 고찰, 한국사학회, 제15집, (1981) pp. 21-35
 - 9) Bem, S.L., Probing the Promise of Androgyny, (1976) (Kaplan, A.G., Bem, J.P.: *Beyond Sex-Role Stereotypes-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 Toronto; Little Brown and Co. 1976)
 - 10) 이주현, 남자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간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11) Horn, M.J. & Gurel, L.M.,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 12) Davis, L.L. Sex Gender Identity and Behavior Concerning Sex-related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84-1985) 3(2) pp. 20-24.
 - 13) Jackson, L.A., The Influence of Sex, Physical Attractiveness, Sex Role and Occupational Sex-Linkage on Perceptions of Occupational Suitabi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83)
 - 14) Kaiser, S.B. & Phinney, J.S., Sex Typing of Play Activities by Girls Clothing Style: Pants Versus Skirts, *C.S.J.*, 13(2), (1983) pp. 115-132
 - 15) 원미숙, 강혜원,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1983) pp. 37-44
 - 16) 최경희,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17) 이현미, 임숙자, 어머니와 딸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의복행동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11(3) (1987) pp. 67-78
 - 18) Calhoun, D.W., *Persons In Groups*, N.Y.: Happer & Row Pub. Inc., (1976)
 - 19) Horn, M.J., *The Second Skin*,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 20)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66)
 - 21) Takahashi, C.L. & Newton, A., Perceptions Clothing Conform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9, No. 9, (1967) pp. 720-723
 - 22) Hambleton, K.B., Roach, M.E., & Ehle, K., Teenage Appearance: Conformity, Preferences, and Self-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4, No. 2, (1972)
 - 23) 정미실,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형상의 상관연구-의복의 동조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24) 임춘봉,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 25) 이경순, 성인 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 26) 이영운,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위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27) Flu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1971)
 - 28) McJimsey, H.T., *Art in Clothing Select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3)
 - 29) Hurlock, E.B., *The Psychology of Dress*. (3rd ed.) A New York Times Company, Arno Press Inc (1976)
 - 30) 심소연,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과세 및 자율욕구와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31) 김광경, 가치관과 의복의 만족도, 과세상, 유행 및 의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2) (1982) pp. 5-63
 - 32) Miller, M.S., & Ryan, M.S., Mothers and Daughter Select School Dresse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2, No 6, 455-456, (1960)
 - 33) Creekmore, A.M.,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 State Univ., (1963)
 - 34) 藤原康晴, 女子大生の被服の關心度と自尊感情との關係, 日本家政學雜誌, 第33卷 10號, (1982) pp. 54-552
 - 35) 김광경, 자아정체감과 의복의 관심도와와의 관계-대중여대생을 중심으로-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4호, (1983)